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의 『침묵(沈黙)』론 — 로드리고와 기치지로의 ‘인생’을 통한 ‘순교’ —

朴 裕 美*

目 次

1. 머리말
 2. 신앙의 증명인 ‘순교’와 ‘배교’
 3. 로드리고와 페레이라의 차이
 4. 로드리고와 기치지로의 ‘인생’을 통한 ‘순교’
 5. 마치며
-

1. 머리말

일본을 대표하는 가톨릭작가 엔도 슈사쿠(遠藤周作)는 1947년(24세) 평론 「신들과 신과(神々と神と)」로 문단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1950년 가톨릭문학 연구자의 포부를 품고 프랑스 유학길에 올랐다. 그러나 이 유학체험을 통해 그는 ‘일본과 서양’사이에서 가로놓인 높은 벽을 느끼고 좌절을 겪게 된다.

이후 일본과 서양, 그리고 서양문화의 핵을 이루는 기독교 사이에 벌어진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고민하던 엔도는 결국 연구자가 아닌 소설가의 길을 선택한다. 그리고 『바다와 독약(海と毒薬)』 『침묵(沈黙)』 『사해의 주변(死海のほとり)』 『무사(侍)』 『깊은 강(深い河)』 등 수 많은 작품을 통해 ‘일본인에게 있어 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일본인과 기독교’라는 테마를 추구하게 된다.

* 충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근현대일본문학

특히 『침묵』은 엔도의 대표작으로, 1966년(43세) 3월 신초샤(新潮社)에서 간행되어 그해 10월 제2회 다니자키준이치로(谷崎潤一郎) 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엔도는 중견 작가로 활발히 활동하던 1960년 폐결핵으로 2년 7개월 동안 입원하면서 세 번에 걸쳐 수술을 받았는데, 이 죽음과 마주한 병상체험을 통해 자신이 줄곧 추구해온 인간과 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으며 그의 문학적 주제는 전환기를 맞이한다. 『침묵(沈黙)』은 바로 이 문학적 주제의 하나의 분수령을 이룬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초기 작품이 “초월자의 높이에서 일본인의 죄의식의 결여와 종교적 불모성에 의 비판”¹⁾을 반복했다면 병후의 ‘일련의 단편’²⁾에서는 기독교와 일본의 거리감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테마를 바탕으로 배교하는 사제의 고뇌, 기독교와 범신론적 세계의 대립과 그 깊은 거리감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새로운 신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리고 이 신의 모습은 『침묵』의 세계로 깊이 수렴되었다.

작가는 작품 후기에서 “나가사키(長崎)에서 본 마멸된 한 장의 후미에(踏絵)³⁾”⁴⁾와의 만남이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데⁵⁾, 이는 엔도가 후미에에 “검은 발가락 자국”을 남긴 사람들, 즉 작품 속의 로드리고와 기치지로와 같은 배교자들의 삶을 통해 ‘신’을 조형해내고자 했음을 말해준다.

이 같은 집필 동기를 볼 때 작품 말미에 첨부된 「기리시탄⁶⁾저택⁷⁾ 관리일기(切支丹屋敷役人日記)」는 중심인물인 로드리고와 기치지로의 배교 후의 삶을 조명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기리시탄저택 관리일기」에 그려진 로드리고와 기치지로의 배교 후의 신앙과 삶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배교자가 아닌 또 다른 의미의 순교자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1) 佐藤泰正 『遠藤周作『沈黙』の世界』(桜楓社, 1974년) p.477

2) 1964년부터 1966년에 걸쳐 「その前日」「爾も、また」「雲仙」「留学」 등, 병상체험과 ‘그리스도교와 일본’이라는 문제의식을 담은 단편들이 발표되었는데, 이들 작품들은 『留學生』(1965.4), 『哀愁』(1965.10)로 간행되었다.

3) 에도(江戸)시대에 기독교를 엄금하기 위해, 그리스도·성모 마리아 등의 상을 새긴 목판 동판 등을 밟게 하여 신자가 아님을 증명하게 하던 일. 또는 그 상(像).

4) 広石廉二 「『沈黙』—踏絵を踏む足の痛み」 『遠藤周作のすべて』(朝文社, 1991) p.252 참조
大浦의 天主堂 부근의 十六番館 출구 근처에 놓여 있던 동판의 후미에를 가리킴.

5) 후기에 “수년 전, 나가사키에서 본 마멸한 한 장의 후미에—거기에는 검은 발가락 자국이 남겨져 있었는데—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것을 밟은 자의 모습이 입원 중 내 안에서 살아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며 작품의 집필동기에 대해 밝히고 있다.

6) 기리시탄은 1549년 예수회의 프란시스코 하비에르(Francisco de Xavier)가 일본에 전한 가톨릭으로, 특히 16·17세기에 건너온 가톨릭 선교사와 가톨릭으로 개종한 일본인을 말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대적, 역사적 의미를 살려 이 시기의 가톨릭 신도를 ‘기리시탄’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7) 기리시탄저택(切支丹屋敷)은 초대 슈몬아라타메야쿠(宗門改め役 : 기리시탄 탄압을 담당하던 관리인 이노우에 마사시게 [井上正重 : 『沈黙』에 등장하는 이노우에 지쿠고노카미(井上筑後守)]의 별저(別邸)였으나 기리시탄을 개종시키는 시설도 겸하고 있었던 데서 기리시탄저택이라 불리게 되었다.

2. 신앙의 증명인 ‘순교’와 ‘배교’

‘순교’⁸⁾란 일반적으로 신앙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고 생각되는 죽음을 가리킨다. 기독교에서 사용되어 온 ‘순교’ [Martyria(그리스어)] 라는 단어는 ‘증인’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처음에는 예수의 생애와 그 부활의 증인인 사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후에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증명한 사람을 이르게 되었다.

프로테스탄트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로 쓰여, 수난 속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은 모두 순교자로 부른다. 순교를 가리키는 영어 ‘martyrdom’이 고난이나 헌신, 순사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듯이 죽음은 순교의 하나의 형태일 뿐이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신앙을 증거하는 동시에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불러일으키는가의 여부가 ‘순교’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박해 속에서 대부분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 신앙을 지켰으며, 더욱이 이들은 구세주를 따르는 완전한 기독교도로 영웅시되어 성인으로 추앙받아 왔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는 죽음을 통해 순교의 길을 걷는 기독교인들이 많았기에 순교라 하면 ‘신앙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는 관념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견고한 하나의 통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순교가 갖는 본질적 의미는 죽음이라는 그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증명’, 그리고 이를 통한 ‘신앙의 확대’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엔도가 『침묵』 속에서 그리고 있는 순교나 배교는 형식화된 개념에 머물지 않고 보다 포괄적이면서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서양의 사제 로드리고가 품고 있던 관념적 순교의 이미지가 일본신도들의 순교를 통해 변화되는 그 추이 속에서도 드러난다.

로드리고 일행이 일본에서의 잠입포교를 결심한 계기는 신의 존재 증명이나 “길 잃은 양처럼 고립되어 있는” 일본의 신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먼저 “교회의 불명예를 설욕”하는 데 있었다. 세계의 끝과도 같은 일개 소국 일본에서 은사이기도 했던 페레이라 신부가 화려한 순교가 아니라 “이교도 앞에 개처럼 굴복”하며 배교했다는 사실이 “유럽 전체의 신앙과 사상의 굴욕적인 패배”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이들 서양의 사제에게 있어 ‘순교’는 찬미 받을 고귀한 행동이나, ‘배교’는 신앙의 치욕적인 패배일 뿐이다. 이처럼 로드리고는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순교에 대한 절대적 찬미의 관념을 지니고 있었다.

8) 순교에 대한 정의와 설명은 小口偉一著 『宗教学辞典』(東京大学出版会, 1989. p.384)에 의함.

로드리고의 이러한 관념적 신앙의 모습은 그가 그리는 ‘예수의 얼굴’에서도 드러난다.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그 얼굴을 마치 연인의 모습을 미화하듯이 마음에 품었다”고 하는 ‘예수의 얼굴’은 “성서의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은, 단지 로드리고의 상상에 의한 것이다. ‘예수의 얼굴’로 상징되는 로드리고의 신앙은 이처럼 허상위에 세워진 관념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기에 그 신앙은 박해 하의 일본, 그 수렁과도 같은 땅에 닿자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순교였습니다. 그러나 이 순교를 뭐라 하면 좋을까요. 나는 오랫동안 성인전에 그려진 순교를 —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때, 하늘에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 천사가 나팔을 부는 빛나는 순교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일본신도의 순교는 것처럼 빛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아, 비는 끊임없이 바다 위를 적십니다. 그리고 바다는 그들을 죽인 후, 그저 으스스하리만큼 침묵을 지키고 있다. (76-77)⁹⁾

로드리고의 순교에 대한 의식은 일본 신도들의 비참한 순교 앞에서 점차 변화된다. 그는 가톨릭이 국교인 포르투갈의 사제로서 성스럽고 고귀한 형태로 이상화되고 형식화된 신앙을 지니고 있었으며, 따라서 성인전에 등장하는 영웅적이고 성스러운 순교자들의 모습만을 생각할 수 있었다. 이는 로드리고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박해의 시대가 끝나, 이제 영광과 번영을 누리는 서양 기독교가 갖는 공통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서양의 사제 로드리고는 일본에 와서 비로소 순교의 참모습을 알게 된다. 사제란 기치지로와 같은 일반 신도와는 달리 특별한 존재라는 자부심에 빠져 예수와 자신을 오버랩하며 관념적으로 신앙과 순교의 이미지를 그려내던 로드리고는 일본신도의 “보잘것없고 처참한 순교” 앞에서 비로소 비천하고 우매하나 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박해 속에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일본의 신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느끼며 무의식중에 후미에를 “밟아도 괜찮아”라고 외치게 된다. 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훗날 로드리고가 후미에를 밟는 복선으로 간주되나, 가즈사 히데오(上総英郎)는 “이 장면은 고향을 허락하는” 로드리고의 “훗날 사제로서의 자각에 이르는 복선”이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로드리고는 무의식중에 “밟아도 괜찮아”라고 외친다. 나는 이 장면을 나중에 로드리고가 후미에를 밟게 되는 복선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잔피를 부리는 기교는 아닐 것이다. “밟아도 괜찮아. 그걸 허락하는 내가 있으니까……” 로드리고가 말하고자 한 진의는 아마 본인도 모른 채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9) 본 논문은 遠藤周作『沈黙』(新潮社、1966)을 텍스트로 하며, 인용문의 한국어 번역은 필자에 의함.

것이다. 옆에서 그를 책망하듯이 응시하는 동료 사제 프란시스 가르페의 시선은 지상교회의 권위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이 장면은 고해를 허용하는 사람인 로드리고의, 훗날 사제로서의 자각에 이르는 복선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¹⁰⁾

여기에서 사제로서의 자각이란 기치지로가 배교자가 된 로드리고를 찾아와 고해성사를 부탁하자 “이 나라에 너의 고해를 들어줄 신부가 없다면, 내가 해주겠다. 모든 고해의 끝에 드리는 기도를.....안심하고 가거라”며 사제로서 고해를 허락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로드리고가 내면의 갈등을 거쳐 진정한 사제로서 자신의 믿음을 확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일본신도에게 후미에를 밟으라고 말하고 스스로도 후미에를 밟는 것은 고문당하는 신도들을 살리고자 하는 순수한 ‘사랑’의 발로였다. 결국 자신의 구원을 포기한 채 신도들을 살리고자 후미에를 밟은 로드리고는 이 ‘배교’를 통해, 자신이 이제껏 혐오해 오던 기치지로와 같은 약자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사제의 마음으로 그에게 평화의 기도를 해줄 수 있게 된다. 이는 그가 가톨릭교회의 사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제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로드리고가 스스로 “나는 이 나라에서 지금도 최후의 기리시탄 사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로드리고는 죽음으로 순교하여 성인전에 영웅으로 기록되기 보다는, 박해 속에서 신음하는 신도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후미에를 밟았으나 그 발의 아픔을 평생 간직하며 죄책감에 괴로워할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길을 택했다. 그런데 이런 삶이야말로 “나의 오늘날까지의 인생이 그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고 하는 로드리고의 말처럼 인생 그 자체를 통해 신앙과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순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삼년 가까이 이어지던 입원생활에서 회복되어 나가사키(長崎)로 여행을 간 엔도는 거기에서 후미에를 본 후 “자신이 그와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후미에를 밟지 않았을까” “그와 같은 검은 발자국을 남긴 인간은 어떤 심정으로 그것을 밟았을까” 그리고 “후미에를 밟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있을까”¹¹⁾ 하는 세 가지의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 그의 마음을 끌었던 것은 후미에를 밟지 않고 자신의 신념이나 사상을 끝까지 관철시킨 사람이 아니라 후미에에 발을 올려놓고 만 사람들, 바로 배교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들 배교자들이 역사 속에서 추방되어 부당하게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떤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후미에에 발을 올려놓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순교자라는 영광 속에서 역

10) 上総英郎 『遠藤秀作論』(春秋社, 1987) p.163

11) 遠藤周作 『異邦人の苦悩』, 『別冊新評 遠藤周作の世界』(新評社, 1973년) p.59

사나 문학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한 데 반해 후미에를 밟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었다.

작가 엔도가 “『침묵』에서 후미에에 검은 발가락 자국을 남긴 사람들과 예수와의 관계를 썼다”¹²⁾고 밝히고 있듯이, 그는 침묵을 강요당했던 배교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했다.

수년 전에 나가사키에서 처음으로 후미에를 보았을 때부터 나의 이 소설은 조금씩 조형되기 시작했다. 오랜 동안 병을 앓아오면서 나는 마모된 후미에 속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 옆에 턱하니 남아있는 검은 발가락의 흔적을 몇 번이고 떠올렸다. 배교자이기에 교회에서도 말하려하지 않고 역사로부터도 말살된 인간, 그들을 침묵 속에서 되살려 내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투영하는 것, 그것이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이다.¹³⁾

엔도는, 작품을 통해 “일본인과 기독교의 거리, 일본인과 유럽에 대한 거리를 계속해서 써왔”으나 “삼년간 입원해야만 했던 경험 중에 이 거리를 조금씩 자신의 내면에서 메우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떻게 메울 수 있었는지의 그 결실이 『침묵』이라는 작품에 드러났다”¹⁴⁾고 밝힌 바 있다. 작가는 배교자라 할 수 있는 로드리고나 기치지로의 조형에 있어 자신의 마음을 투영시키면서 후미에를 밟은 이 배교자들을 새로운 각도로 응시하고자 했다. 엔도가 “기치지로는 저 자신입니다”¹⁵⁾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들 배교자들과 신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과 기독교의 거리를 비로소 줄일 수 있었다. 그렇기에 배교자의 상징과 같은 인물인 기치지로의 목소리는 작품 이해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그러나 저에게는 제 나뉠의 변명이 있어요. 후미에를 밟은 자에게는 밟은 자의 변명이 있다구요. 후미에를 제가 좋아서 밟은 줄 아십니까? 밟은 이 발은 아픕니다. 아프다구요. 저를 마음 약하게 태어나게 해 놓고는 강자의 흉내를 내라고 신은 말씀하십니다. (150)

기치지로의 이 호소는 오랫동안 배교자라는 낙인 속에 침묵을 강요당했던 약자들의 목소리라 할 수 있다. 오랜 박해의 세월동안 후미에를 밟도록 강요받은 무수한 신도들 중에는 목숨을 바쳐 순교할 수 있는 강한 마음의 소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치지로와 같이 나약한 사람들도 존재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비록 두려움에 떨며 후미에를 밟았다 해도 그들 역시 발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

12) 전계주11) 『異邦人の苦惱』 p.65

13) 遠藤周作 『沈黙』, 新潮社, 1966년도판의 바깥 상자에 띠 대신에 인쇄되어 있던 엔도의 말.

14) 전계주11) 『異邦人の苦惱』 p.58

15) 遠藤周作 『私にとって神とは』 (光文社, 1983) p.184

없이 후미에를 밟지는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기치지로가 느끼는 ‘발의 아픔’은 그의 신앙의 증거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살아남은 기리시탄의 아픔, 즉 배교자라는 오명 속에서 일생 동안 신에 대한 믿음도, 그 신을 배신했다는 죄의식도 지우지 못한 채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숨은 기리시탄들의 고통을 상징한다.

나에게 있어 숨어 있는 기리시탄이 흥미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이 배교자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자손들은 선조와 마찬가지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지도 못한 채, 평생 자신의 속임수와 같은 삶에 후회와 어두운 양심의 가책과 굴욕을 느끼며 살아왔다고 하는 점이다.¹⁶⁾

위의 엔도가 쓴 『어머니라는 것(母なるもの)』의 일절을 볼 때, 그가 숨죽인 채 살아가야 하는 기리시탄들이 평생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즈사 히데오(上総英郎)는 기치지로의 신앙을 도마뱀의 꼬리와 같다고 설명한다. “겉쟁이는 몇 번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꼬리를 버리고 도망치”나 도마뱀의 꼬리가 다시 생겨나듯 “신앙은 언젠가는 되살아난다”는 것이다.¹⁷⁾ 이처럼 몇 번이나 배교를 하면서도 결국 신 앞에 다시 돌아오는 행위를 반복하는 기치지로는, 외형적으로는 배교를 거듭하면서도 믿음만은 버리지 못한 채 굴욕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모두를 대표한다 하겠다.

사실 신앙은 성인전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순교자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배교자라고 낙인찍힌 그들, 숨은 기리시탄들에 의해 그 뿌리가 꺾이지 않고 면면히 이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비록 불명예와 오명으로 더럽혀지고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통한 순교와는 다른 방법으로 신앙을 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은 우리들 인간의 인생, 혹은 인간 그 자체를 통해 그 존재를 증명하고 그 언어를 이야기 하고 있다. 아무리 하찮은 인간의 인생이라도 신은 그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기에 (중략) 성인을 쓰지 않아도 배교자를 썼다 해도 신이라는 존재, 신의 목소리가 어떠한 형태로든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그 배교했다고 하는 인생 그 자체 속에 신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무래도 한 줄 첨가하고 싶었습니다.¹⁸⁾

16) 遠藤秀作 『母なるもの』 (新潮社, 1980) p.35

17) 전계주10) 『遠藤秀作論』. p.169

18) 遠藤周作 외 3인 「神の沈黙と人間の証言—遠藤秀作『沈黙』をめぐる—, 『複音と世界』 (新考出版社, 1966) p.56

엔도가 위에서 말한 한 줄이란 “오늘날까지의 나의 인생이 그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라는 로드리고의 마지막 대사를 가리킨다. 작가는 인간의 십자가를 나눠진 채 함께 아파하는 신을 조형하기 위해 기독교의 교의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교한 기리시탄을 역사 속에서 되살려내어 그들의 목소리를 작품세계에 옮겨놓았다. 그리고 이들 배교자의 삶과 목소리를 통해 신을 말하고 있다. 자신을 배신한 자들의 고통까지도 포용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자애를 베푸는 그리스도야 말로 일본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의 모습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 인생이 신을 증거하고 신앙을 증명한다면 그것은 ‘순교’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로드리고나 기치지로와 같은 배교자들은 죽음을 통한 순교가 아니라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 신을 말하고 신앙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또 다른 모습의 ‘순교자’라 할 수 있다.

3. 로드리고와 페레이라의 차이

작가는 9장 중간에 「나가사키 데지마 오란다 상관원 요나센 일기(長崎出島オランダ商館員ヨナセンの日記)」를 삽입하여, 로드리고가 후미에를 밟은 후 보낸 15개월가량의 나가사키생활을 담고 있다.

이 일기 속에서 요나센은 로드리고와 페레이라에 대해 두 사람이 배교하여 일본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사제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현재는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이 기리시탄과 관계있는지를 조사하는 일을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로드리고와 페레이라가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센이 페레이라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비난하나 로드리고에 대해서는 사뭇 호의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페레이라가 적극적으로 기리시탄 색출에 협력하고 있으며 그 속이 검다고 비난하면서 “이 신을 잃어버린 악한의 죽음을 바랄 정도”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로드리고는 이와 대조적이다. 배교한 사제는 기리시탄을 색출하거나, 페레이라가 로드리고에게 그랬듯이 기리시탄을 배교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통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로드리고는 기리시탄으로 의심받아 심문을 당하는 사람을 배교시키려 하기 보다는 그들의 구명에 애쓴다. 이는 신자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그의 ‘사제’로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배교를 의심받은 로드리고는 에도(江戸)의 ‘기리시탄저택(切支丹屋敷)’에 유폐되고, 이후 오카다 미우에몬(岡田三右衛門)이란 이름으로 살아간다. 이 ‘기리시탄저택’은 배교한 선교사들이나 기리시탄들이 모여 살던 거주

지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며 관리의 감시 하에 생활하던 곳이다. 이곳은 ‘옥사’라고도 불렸는데 ‘감옥’과 같은 곳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감옥과 같은 기리시탄저택에서의 삶은 로드리고가 신을 버리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할 수 있으며, 이는 유페생활을 하지 않았던 페레이라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해진다. 이처럼 「요나센 일기」는 외국인의 기록을 바탕으로 로드리고의 배교 후의 삶을 객관적으로 그리면서, 페레이라와 로드리고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로드리고와 마찬가지로 페레이라 역시 신자를 고문에서 구하고자 하는 ‘사랑’으로 배교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내가 배교한 것은 구덩이에 매달렸기 때문이 아닐세. (중략) 신을 배신하는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어. (중략) 그 후에 여기에 들어와 듣게 된 저 소리에 신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일세. 나는 필사적으로 신에게 기도했으나 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219-220)

로드리가 구덩이 매달기 고문에 괴로워하는 신도들의 신음소리를 ‘코고는 소리’로 착각한 사실에 충격을 받은 뒤 후미에에 이끌려갔듯이, 페레이라 역시 신도들의 그 신음소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의 침묵과 방관으로 인해 배교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을 대신하여 신도들을 살리기 위해 배교했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두 사람 모두 신자에 대한 사랑의 발로로 배교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미에를 밟은 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로드리고는 기치지로라는 약자를 통해 비겁하고 교활한 인간까지도 사랑하는 신을 이해하게 되었다. 몇 번이고 신앙의 꼬리를 잘라버리며 도망치는 기치지로의 인간적 나약함이 사제인 자신에게도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은 로드리고는, 후미에를 밟은 자신을 용서하며 “나도 곁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끝까지 너의 곁에 있겠다”고 말하는 신과 만나게 된다.

이처럼 인간들이 몇 번을 배교한 후 다시 돌아와도 포용하는, 그런 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 로드리고는 자신을 결코 저버리지 않을 신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이점이 로드리고와 페레이라의 가장 큰 차이라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종교는 신이 인간에게 있어 무서운 존재이며 또 그 신이 인간의 악을 재판하고 벌을 주며 분노하는 신이다. 어머니의 종교는 그와 달리, 마치 모친이 됨됨이가 바르지 못한 아이에게도 그렇게 대하듯이 신이 그것을 용서하고 신이 인간과 함께 괴로워하는 종교이다.¹⁹⁾

위에서 엔도는 종교의 양면성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오랫동안 거리감을 느끼고 있던 유럽의 기독교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고 벌하는 무서운 ‘아버지의 종교’이며, 기리시탄 시대의 선교사들이 용서하고 인간과 함께 괴로워하는 ‘어머니의 종교’라는 면을 경시해 왔기에 일본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엔도는 일본인에게 있어서의 기독교를 “몸에 맞지 않는 양복”에 비유한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 세례를 받았던 그는, “어머니가 입혀준 양복을 자신의 몸에 맞는 일본 옷으로 고치려”²⁰⁾ 노력하는데, 이는 일본인에게 맞는 그리스도상의 조형으로 귀착되었다. 그리고 『침묵』을 씀으로 해서 자신과 기독교와의 거리감의 일부를 메울 수 있었다고 작가가 말했듯이, 그것은 서양적인 아버지의 종교에서 일본적인 어머니의 종교로의 전환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서양의 사제 로드리고가 상상하던 “사내답고 힘 있는 얼굴”의 예수상이 일본에 와서는 “몹시 지쳐 양상한” 얼굴로 변화한 사실과도 조용한다.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인 주인공이 마음에 품고 있던 그리스도 얼굴의 변화이다. 주인공은 마음속에 강하고 위엄 있는, 그리고 질서를 지니고 질서가 지배하는 예수의 얼굴을 마음에 지니고 있었다. (중략) 그가 처음으로 일본에서 본, 일본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얼굴은 (중략) 지치고,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고통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이었다. 이 얼굴의 변화가 나의 『침묵』의 주제의 낱실이 되었다.²¹⁾

로드리가 그리는 예수의 얼굴이 서양적 아버지의 모습에서 일본적인 어머니의 그것으로 변화해 가듯이 로드리고의 신앙 또한 ‘어머니의 종교’로 전환해간다.

이에 대해 가사이 아키후(笠井秋生)는 “나는 후미에를 밟았다. 그러나 주요. 제가 배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만은 알고 계십니다”라는 로드리고의 말을 인용하며 “로드리는 후미에를 밟았으나 기독교를 버린 것은 아니다. 후미에 속 그리스도의 얼굴과의 대면을 통해, 그의 그리스도상이 ‘아버지 종교의 그리스도’에서 ‘어머니 종교의 그리스도’로 전환했다”²²⁾고 설명한다. 그리고 “주인공 로드리고는 자신의 불안과 걱정을 진정시켜주는 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음에 품으며, 기리시탄 박해 하의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자 결의”한 것이라 주장한다.

이와 달리 작품세계에서 페레이라가 ‘수령’같은 일본에 뿌리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서양적인 ‘아버지와 같은 신’이다.

19) 전계주11) 『異邦人の苦惱』 p.60

20) 전계주15) 『私にとって神とは』 p.11

21) 전계주11) 『異邦人の苦惱』 p.60

22) 笠井秋生 『沈黙』一父の宗教から母の宗教への転換』 『遠藤周作論』, (双文社出版, 1987) pp.154-156

이 나라는 수렁 땅일세. (중략) 이 나라는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더욱 무서운 수렁 땅이었어. 어떤 묘목도 그 수렁 땅에 심으면 뿌리가 썩기 시작하지. (중략) 우리는 이 수렁 땅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묘목을 심었던 거야. (194)

페레이라는 포교에 패배해 체념과 절망에 빠진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 스스로를 위로하듯 “나는 이 나라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만을 되풀이한다. 페레이라의 신은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무엇인가 해주길 바랄 때는 침묵하다가, 배교한 그를 용서하기 보다는 분노하고 벌을 주는 신이다.

로드리고가 배교를 통해 자신을 용서하고 같이 아파하는 ‘어머니와 같은 신’ ‘동반자예수’를 찾았다면, 페레이라는 끝까지 침묵하는 신에게 깊은 절망을 느낀 사람이라 하겠다.

엔도는 “신에 대한 절망이 최대의 악이며 반역”²³⁾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페레이라는 결국 일본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기독교와 침묵하며 방관하는 신에 대해 절망한 채 일본의 기리시탄 박해에 앞장서게 된다.

4. 로드리고와 기치지로의 ‘인생’을 통한 ‘순교’

『침묵』의 말미에는 역사적 기록물 형식의 「기리시탄저택 관리일기」(이후 「관리일기」로 약칭)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가가 「후기」에서 밝히고 있듯이 『조쿠조쿠군쇼루이주(続々群書類従)』 중 「사켄요로쿠(査祿余録)」에서 발췌하여 새로 고쳐 쓴 것이다. 「사켄요로쿠」는 기리시탄저택의 관리가 1672년부터 1691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저택 내의 사람들과 사건 등을 한문체로 기록한 글로, 작가는 여기에서 로드리고의 모델인 오카모토 자우에몬(岡本三右衛門)²⁴⁾에 관한 내용 등, 여덟 곳을 발췌하여 소설의 흐름에 맞게 연도와 고유명사, 연령 등을 변형시켜 재구성하였다.

그런데 한문체로 되어있어 독해가 난해한 때문인지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관리일기」를 읽지 않은 채 책을 덮고 만다. 뿐만 아니라 히로이시 렌지(広石廉二)²⁵⁾는 『침묵』에 “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리시탄저택 관리일기」라는 장의 형태”라며 자신이 중요한 부분을 오독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사실을

23) 전개주18) 「神の沈黙と人間の証言—遠藤周作『沈黙』をめぐる」 pp.57-58

24) 본명 주세페 카라, 시실리아 태생. 1643년 지쿠젠오지마(筑前大島)에 상륙, 잠복포교 활동 중 체포되어 예도의 고이시가와와(小石川)의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이노우에 지쿠고노카미(井上筑後守)의 구덩이 매달기 형벌을 받고 배교하였으며 일본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리시탄 저택에서 살다 1685년 84세로 세상을 떠난다.

25) 전개주4) 『沈黙』—踏絵を踏む足の痛み」 p.271

밝히고 있는데, 일반 독자들뿐만 아니라 연구자들까지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관리일기」를 ‘참고’나 ‘자료’, ‘부기’ 등의 제목을 부여하지 않고 작품의 말미에 놓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어디까지나 작품의 일부, 소설의 연속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가 또한 그곳도 중요하기에 읽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그 부분을 읽지 않은 채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음을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역시 기독교도입니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코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고문을 당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계약서를 쓰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서적’, 즉 ‘문서’라는 말로 암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치지로도 성화가 그려진 메달을 지니고 있다 처벌받습니다. 때문에 그들 두 사람은 배교한 후 다시 회복하고, 또 배교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사실도 암시하고 싶었습니다.²⁶⁾

「관리일기」에는 오카다 미우에몬이 세 번에 걸쳐 ‘종문의 서적(宗門の書物)’을 쓴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오독하여 배교 후 페레이라가 쓰고 있던 『겐기로쿠(顯偽録)』와 동질의 것, 즉 기독교의 거짓을 밝히기 위한 책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에 작가는 이를 바로 잡고자 한 것이다.

배교한 신부와 그 주변에 모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등을 기록한 「관리일기」라는 역사적 자료에 근거하여, 로드리고와 기치지로의 끝나지 않는 신앙의 투쟁을 암시하고 배교 후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 리얼리티를 부여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이 부분은 로드리고와 기치지로의 끝나지 않은 신앙을 말해주고 있기에 오독을 바로잡는 문제는 그 만큼 중요하다 하겠다.

엔도는 자신의 등을 뒤편이 계속 밀어주면서 가야할 방향을 알려주듯이 “신은 언제나 누군가 사람이거나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작가는 이런 ‘신의 작용’을 “『침묵』의 최후에 주인공의 입을 통해 썼다”²⁷⁾고 밝히고 있는데, 바로 “나의 지금까지의 인생이 그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로드리고의 마지막 대사를 가리킨다. 따라서 배교 후의 인생을 담고 있는 「관리일기」는 ‘인생’이 ‘신’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로드리고와 기치지로의 끝나지 않은 신앙의 투쟁을 암시하고 있기에 작품이해를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배교 후에도 남몰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순탄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죽음을 통한 순교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힘들게 일생을 보내면서도 끝내 버릴 수 없

26) 遠藤秀作・三好行雄「対談文学—弱者の論理」, 『群像日本の作家22遠藤秀作』(小学館, 1991년) p.250

27) 전계주15) 『私にとって神とは』 pp.20-21 참조

는 신앙이란 로드리고가 처음 지니고 있던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육화(肉化)되어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자신과 일체화된 믿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로드리가와 기치지로가 지니게 되었음을 「관리일기」는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철저한 감시 속에 유폐 생활을 하고 거짓 배교서약서를 몇 번이고 쓰면서도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은밀히 기리시탄저택 내에 전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치지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겉쟁이·비겉자의 상징과 같던 기치지로는, 배교하여 출옥한 후 도망쳐버리면 그만일 텐데 끝까지 로드리고의 곁을 떠나지 못한 채 그의 주젠(中間, 중간 하인)이 되어 기리시탄저택에서 살고 있다. 그는 이제 겁에 질린 채 후미에를 밟고 로드리고를 밀고했던 비겉자가 아니라, 굳은 신앙을 지닌 사람으로 거듭나 있다.

기리시탄으로 의심 받아 취조를 받던 중 기치지로가 목에 걸고 있던 부적 주머니 안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그려진 본존성화(本尊聖畫)가 발견된다. 이에 대해 로드리고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냐고 심문당하나 기치지로는 끝내 그와의 관계를 부정한다. 이 사건을 통해 사제인 로드리고와 그를 돕는 기치지로를 중심으로 기리시탄저택 내에서 은밀히 신앙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치지로는 여전히 사제라 할 수 있는 로드리고를 보호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채 처벌을 받는데, 그의 이런 모습은 ‘예수의 순교한 제자들’과 중첩된다.

엔도는 유다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얼굴에 “검은 발가락의 흔적을 남긴 제자들이 예수 사후, 신념을 지닌 사람이 되어 포교”²⁸⁾하다 최후에는 모두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의 사랑’에 있다고 설명한다. 예수를 배신한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신에게 자신들을 벌해 달라고 말하리라 생각했으나 벌을 내려달라는 대신 그들을 용서해주시라는 말을 하”²⁹⁾고 숨을 거두자, 비로소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진실한 믿음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치지로 역시 이와 같은 믿음의 과정을 거친다.

비겉한 약자의 상징이었던 기치지로는 배교와 신앙 회복을 반복한 자신의 인생을 통해, 그런 나약한 자신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을 마음에 담을 수 있었으며, 결국 예수의 제자들처럼 ‘신앙의 강자’가 되어 일생을 마감한다.

한편 로드리고는 ‘불식(不食)’³⁰⁾을 행하다 죽음을 맞이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불식’은 현재도 종교적 의식의 하나로 행해지고 있는 ‘금식’이라 볼 수 있다. 요컨대 로드리고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간직한 채 종교적 의식을 행하

28) 전계주11) 「異邦人の苦惱」 p.65

29) 전계주15) 『私にとって神とは』. p.87

30) 이 ‘불식’의 해석에 있어 일부에서는 스스로 먹지 않았기에 ‘절식’에 의한 ‘자살’로 설명하기도 하나, 기독교에서 ‘자살’이 살인과 같은 큰 죄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로드리고의 죽음을 자살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로드리고는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과 나의 주는 다른 존재”라고 말한다. 이는 자신의 배교를 비난할 가톨릭 교단이 자신에게 가르쳐왔던 믿음과는 다른 형태의 신앙을 지니게 되었음을 뜻한다. 물론 이 믿음이 엔도가 말하는 ‘어머니의 종교’라는 사실은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로드리고는 후미에를 밟는 행위를 통해 기치지로와 같은 약자의 위치에 섰으며, 그런 배교자·약자의 “나약함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의 사제로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기리시탄저택 유폐 후 로드리고와 기치지로가 비밀스럽게 전한 신, 그리고 엔도가 작품 후기에서 “로드리고의 최후의 신앙”이라 말한 것은 배교를 통해 로드리고가 지니게 된 어머니와 같은 그리스도라 하겠다.

“나는 이 나라에서 지금도 최후의 기리시탄 사제”라고 말하고 있듯이 로드리고는 배교 후의 인생을, 이 기독교를 전도하는 사제로 일관했으며, 기치지로 또한 로드리고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인생이 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의미를 실천한 인물이라 하겠다.

5. 맺음말

엔도의 『침묵』은 로드리고와 기치지로의 아픔과 고난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교자라는 이유로 역사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던 그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한 작가는 「요나센일기」나 「기리시탄저택 관리일기」와 같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 배교 후에도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은 그들의 삶을 담아낸다. 역사가 물어버린 그들의 삶을 역사적 기록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그들이 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 신을 증명하는 순교를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배교자의 인생을 통해서도 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는 작가의 믿음처럼 『침묵』은 배교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신을 이야기 한다. 따라서 『침묵』에 그려지는 순교와 배교의 의미는 작품 이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순교와 배교의 의미를 살펴보고 작품세계에서 배교가 신을 증거하는 또 다른 형태의 순교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고찰을 시도했다.

다음으로 로드리고와 페레이라의 배교 후 삶이 보이는 차이에 대해 로드리고가 배교를 통해 자신을 용서하고 함께 아파하는 사랑의 신을 발견한 반면 페레이라는 신의 침묵, 그리고 일본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서양의 기독교에 절망했다는 데 그 원인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는 또한 두 사제가 믿고 있는 일본

적인 ‘어머니의 종교’와 서양의 ‘아버지의 종교’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리시탄저택 관리일기」에 그려져 있는 로드리고와 기치지로의 삶에 초점을 맞춰, 그들이 일생동안 신앙을 관철시켰음을 규명해 보았다.

로드리고는 배교 후 신의 진정한 사제로 다시 태어났으며, 비겁한 겁쟁이로 그려지던 기치지로는 신앙에의 강자가 되어 저택 내에 기독교를 전한다. 이처럼 로드리고와 기치지로는 단순히 배교자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를 통해 신앙을 증명하는 순교자이며, “인간의 인생이 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의미를 실천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엔도는 일본인과 기독교의 거리감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기독교와 자신’이라는 특수한 테마’를 일생의 과제로 삼은 작가이다. 그리고 이 거리감을 메우기 위해 그는 일본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을 조형해 가는데, 『침묵』속에 그려진 ‘모성적 신’이야말로 그 커다란 결실이라 하겠다.

【参考文献】

遠藤周作 『沈黙』, 新潮社, 1966

遠藤周作 「異邦人の苦惱」 『別冊新評 遠藤周作の世界』, 新評社, 1973. pp.58-65

遠藤周作 『私にとって神とは』, 光文社, 1983.

遠藤周作 외 3인 「神の沈黙と人間の証言—遠藤周作『沈黙』をめぐって」 『復音と世界』, 新考出版社, 1966. pp.56-58

遠藤周作・三好行雄 「対談文学—弱者の論理」 『群像日本の作家22遠藤周作』, 小学館, 1991. p.250

小口偉一 『宗教学辞典』, 東京大学出版会, 1989. p.384

笠井秋生 「『沈黙』—父の宗教から母の宗教への転換」 『遠藤周作論』, 双文社出版, 1987

上総英郎 『遠藤周作論』, 春秋社, 1987. pp.163-169

佐藤泰正 『遠藤周作『沈黙』の世界』, 桜楓社, 1974년. p.477

広石廉二 「『沈黙』—踏絵を踏む足の痛み」 『遠藤周作のすべて』, 朝文社, 1991. p.252,p.271

要 旨

『沈黙』は「自分の第一期はこれで打ち止めにしたい」とみずから語る如く、作者遠藤周作が文学的に追及していたものが一つの到達点を得た作品であると言える。

背教者の人生を描きながら彼らの中に神の存在というもの、神の声というものが入っていると思った遠藤は、転び者ゆえに歴史の中で沈黙させられていた彼等の声を通じて神について語ろうとしたのである。そこで筆者は『沈黙』の中で描かれている「殉教」と「背教」の意味が作品において重要なキーワードになっていることに注目した。

もともと「殉教」というのは、「証人」という言葉に由来し、自分の信仰を証明していると同時に、神の存在証明、また人々の信仰を呼び起こすものであるかどうかはその基準とされているのである。従って背教者としてもその人生が神の存在を証明しているならば殉教になりうるのである。それで、本稿では転び物であるロドリゴとキチジローが単なる背教者ではなく、その「人生」を貫いて神の存在を証明した「殉教者」という観点で考察を試みた。

作家は「切支丹屋敷役人日記」のような歴史的記録物を基にして転んだ後でも信仰を守り通したロドリゴとキチジローの生涯を描いている。ロドリゴは背教した後、神の真の司祭として生まれ変わっている。また弱虫、卑怯者の象徴として描かれていたキチジローも信仰の強者、司祭のロドリゴの協力者になって屋敷内に基督を伝道している。これは二人が何度も転んでも立ち直れば許してくれる神、人間の痛みや苦しみを共にする「同伴者イエス」を持つようになったからである。つまり、この二人の姿は日本人の受け入れる「母の神」への転換によるものであると言える。

しかし、同じ司祭であるフェレイラは西洋の「父なる神」を持ち続けたため、神の沈黙、そして日本に根をおろせない基督教に絶望したすえに背教した後、ロドリゴとは逆の方向に向かっていってしまう。

このように見ていくと、ロドリゴとキチジローはその人生を通じて信仰を証明した殉教者であり、また、「人間の人生が神について語っている」と言う意味を実現した人物であると言えるだろう。

遠藤周作は日本人と基督教の距離感をどのようにしてうずめるかというテーマを一生の課題にして来た作家である。そして、その距離感をうずめるために彼は日本人に合う神を造形して行く。『沈黙』に描かれた「母なる神」こそ、その大きな結実だと言えるだろう。

キーワード : 沈黙、神、基督教、殉教、棄教、転び、切支丹、
踏み絵、母の宗教、切支丹屋敷役人日記

투 고 : 2008. 5. 31
1차 심사 : 2008. 6. 14
2차 심사 : 2008. 6. 28

住 所 : (305-764)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79 충남대학교 일어일문과

電 話 : 042-821-5371

e-mail : sabinaz@hanmail.net